

광양 48층·목포 42층...초고층 건물 ‘쑥쑥’ 경관·조망·교통 등 ‘공적 자산’ 침해 심각

허가 과정에 명확한 기준 없고
지역내 공감대 형성 절차 부족

광양, 목포 등 전남 중소도시에도 4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가 조만간 들어서거나 착공할 예정이다. 지나친 고층화와 고밀도에 의해 인근 주민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경관, 조망, 교통 등 공적(公的) 자산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허가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 제시나 지역 내 공감대 형성 절차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설업체는 좁은 부지에 높은 건물을 지으면서 혜택을 받지만, 단체장이나 일부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판단기준은 과거 중고층 건물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건축위원회는 지하 2층 지상 42층 규모의 목포시 상동 A주상복합아파트를 조건부 의결했다. 목포 예술의 거리에서의 스카이라인 검토, 주차장 추가 등 경관·교통 등의 조건만 이행하면 건설업체는 전남 서부권 최고층 건물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중심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건폐율(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83.36%,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지상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은 1189.37%에 달한다. 건폐율, 용적률이 한도인 90%와 1300%에 이를 만큼 건설업체는 해당 부지를 범이정한 최대 허용치로 개발할 예정이다. 반면 대지면적 3183.70㎡ 중 조경면적은 480.66㎡로, 법정 면적(대지면적의 15%)을 고작 0.09% 초과했다. 298세대 거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조경 면적은 최소화한 것이다.

광양시에 들어서고 있는 48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는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



“리우, 우리가 간다고 전해라”

27일 새벽 카타르 도하 알 사드 스포츠클럽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 카타르의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4강 경기. 한국 권창훈이 결승골을 넣은 후 환호하고 있다. 한국은 카타르를 3-1로 꺾고 리우행 티켓을 확보, 세계 최초로 올림픽 8회 연속 진출의 쾌거를 이뤘다. 한국과 일본과의 결승전은 30일 밤 11시 45분에 열린다. ▶관련기사 20면

다. 전남 동부권 최고층 건물인 이 아파트는 지난 2013년 전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광양시가 건축허가를 내줬다. 용적률은 910.34%로, 2개동에 440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과거 여러차례 개발이 시도됐지만 무산됐다가 결국 민간건설업체

가 초고층 개발에 나섰다 것이 광양시의 설명이다. 전남도 건축위원회는 건축조례에 따라 22개 시·군의 16층 이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1층 이상 일반건축물을 심의하고 있지만, 그 대상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조례가 개정되기 전 건축허가가 나갔거나 아니면 광양시가 자체 심의를 했을 것”이라며 “허가권자가 시·군 단체장이기 때문에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광주, 프리미엄 가전산업 거점 육성”

서병삼 부사장 “무풍에어컨·패밀리허브 냉장고 광주서 생산”

삼성전자가 광주사업장의 일부 생산라인 베트남 이전을 대신해 광주를 프리미엄 가전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관련기사 5면>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삼성전자 서병삼 부사장(생활가전사업부장)은 이날 운영현

황주시장과 면담을 하고 “삼성전자는 광주를 프리미엄 가전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 부사장은 이를 위해 신규 출시 예정인 프리미엄 제품 ‘무풍에어컨’과 ‘패밀리허브 냉장고’를 광주공장에서 생산하겠다

고 덧붙였다.

이날 서 부사장의 광주시청 방문은 지난 21일 윤 시장이 삼성의 고위층에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생산라인 해외 이전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를 전달한 지 6일만에 이뤄졌다.

서 부사장은 또 “삼성전자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의회에 적극 참여

하고 기술지도 강화, 상생펀드 확대 조성, 사내 생산중인 부품의 외주생산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박주선의 통합신당, 국민의당과 통합

野, 더민주·국민의당 재편

총선 수도권 연대 최대 관심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에 이어 박주선 의원의 통합신당도 27일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과 통합했다. 이에 따라, 야권은 진보 진영의 정의당을 범야권전략협의체로 묶은 더불어민주당과 ‘반문(反文)·호남연대’를 내세운 국민의당의 양대 세력으로 재편됐다.

<관련기사 3·4면>

이처럼 천정배, 박주선 의원 등 호남신당 세력이 연쇄 통합에 나섬에 따라 국민의당에 대한 적극적 지지에서 한 발짝 물러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호남민심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통합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인 박주선 의원과 국민의당 윤여준·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통합을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철수 의원, 물밑 중재 역할을 해온 김한길 전 대표도 참석했다.

양측은 통합선언문에서 “2016년 총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고 2017년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통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들을 총선에서 공

천하기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칙과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합리적 중도개혁 인사들의 참여 및 신당 추진 세력과의 통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주선 의원의 합류로 국민의당은 17석의 의석을 확보,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에 더욱 근접하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호남과 수도권 일부 의원들의 합류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2일 창당대회까지는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의 통합신당당이 국민의당과 통합함에 따라 오는 30일 통합 예정인 ‘박준영 신민당’과 ‘김민석 민주당’도 국민의당과 통합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전북 정동영 전 의원의 국민의당 합류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야권 분열이 현실화되면서 총선 전 야권 통합 및 선거 연대를 통해 새누리당에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선거 연대 불가론이 강하지만 야권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호남에서의 경쟁,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의 연대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종인 “광주 분들에게 굉장히 죄송”

국보위 참여 전력 사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과거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참여 전력에 대해 “광주 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하다”며 뒤늦게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국보위 참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지역에서 계속되는데도 지난 22일 “지금까지 국보위뿐 아니라 어떤 결정을 해 참여한 일에 대해 스스로 후회한 적 없다”며 버텼었다. 하지만, 광주 출신 영입인사인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호남 민심은 국보위 전력에 대한 김 위원장의 유감 표명을 원한다”고 말하는 등 뒷받침 호남 정서가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앙위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가 국보위에 참여했던 전력이 광



주 여러분에게 참 정서적인 문제를 야기시켜 ‘잘못된 것을 왜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 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이 일

어나면서 대한민국이 87년 개헌을 하고 민주주의의 국가로 탈바꿈하는 과정이었다”며 “그 정신을 받들어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그에 보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LEXUS HYBRID ZERO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All New ES 300h

All New ES 300h

당신은 감동하고 세상은 주목한다

차를 향해 걸어가는 순간부터 시작된 감동은 차에 오르는 순간과 드라이빙의 순간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완벽하게 지속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조차 럭셔리하게 바뀌게 될 렉서스 All New ES 300h. 당신은 감동하고 세상은 주목할 단 하나의 하이브리드입니다

LEXUS AMAZING IN MOTION

광주 전시장: 080-384-7733(광주 서구 상무대로 881) | 전주 전시장: 080-263-7743(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621) | www.hyosunglexus.com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ES 300h(4기통 2,494cc, 공차중량 1,685kg, E-CVT 변속기), 복합연비: 16.4km/ℓ(도시연비: 16.1km/ℓ, 고속도로연비: 16.7km/ℓ), 복합CO₂ 배출량: 103g/km, 등급: 1등급 *이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